

매직탑 기술 적용한 컵스프 개발 이지필 특성 용기에 적용



우인봉

CJ(주) 포장개발센터대리

최근 CJ(주)가 출시한 프레시안 양송이 스프와, 프레시안 브로콜리 치즈스프는 컵라면 형태로, 수프를 부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완성되는 즉석 수프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을 새롭게 컵라면 형태로 매직탑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봉 할 수 있다.

이 용기에 적용된 매직탑 시스템에 대하여 CJ(주) 포장개발센터 우인봉 씨를 통해 제품의 원리 및 장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기존에 컵용기에 리드필름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 소비자 사용성을 고려하여 리드필름에 이지필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뜯기 쉬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드필름 이지필은 생산시 정확한 실링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이지필이 잘 되지 않거나 리드가 터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해결책으로 매직탑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J(주) 포장개발센터 우인봉 씨는 “CJ(주) 컵스프 제품은 포장에 매직탑이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원리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이지필 특성을 용기에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용기를 성형하기 전단계인 시트 생산시 이

지필 기능을 하는 코팅층을 만들어 주고 용기 성형후에 프랜지 부위에 노치 가공을 하여 리드를 벗길 때 용기에서 코팅층이 벗겨지도록 하는 원리이다. 장점으로는 소비자들이 리드를 벗길 때 쉽고 편리하게 개봉할 수 있고, 내압강도가 높아 살균중이나 유통 중에 리드 터짐에 대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들이 확실히 리드를 뜯기가 쉬워져 “편리하다”라고 의견을 표해 기존에 발생했던 클레임은 줄어들 것으로 CJ(주)측은 기대하고 있다.

우인봉 씨는 “용기에 리드필름으로 구성된 포장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취식을 제공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기존에도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더욱더 편리하게 제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직탑 기술을 적용한 용기형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출시 될 것”이라고



▲ 매직탑 기술 적용한 컵스프

말했다.

이번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는 “용기/리드필름 타입의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이 없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현장 오퍼레이터들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며 “파일럿 설비에서 테스트하여 예상했던 품질과 실제 라인에서의 품질이 많이 달라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현재 신선식품 카테고리 제품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인봉 씨는 신제품 포장개발, 기존 제품 포장 개선, 포장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업무 그리고, 신포장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포장이라는 것이 마케팅, 생산, 영업 등 모든 부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 소비자가 원하고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나를 알아내고 그걸 포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는 매직탑을 이용해 다른 제품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중에 있다.

앞으로도 그는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

이한얼 기자